

개미는 아직도 정치판의 호구일까



차 상근의
관망과 훈수

“세금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죽음은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세금은 나이 좀 먹고 깨닫게 된다. 거의 무의식중에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부터 직장인이 되면 빠짐없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친구, 동료들과 술 한잔 하면서 내는 주세·교육세도 있고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도 있다.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면 당연한 듯이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낸다. 동시에 껌껌지같이 재산세, 주민세는 매년 내야 한다. 집값이 뛰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아이들이 커면서 집을 좀 크게로 옮기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나라에 바쳐야 한다. 늙어서 죽음을 준비할 때쯤이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민도 해야 한다. 만약 직장을 나와 구멍가게나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세금의 규모는 커지고 이때쯤 되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완전히 이해된다.

이렇게나 세금 종류가 많은데 요즘 또 하나의 없던 세금이 나타나 온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의사 증원 문제를 능가하는 전국적 논란의 최상위권에 있다.

지난 2020년 금투세 입법의 설계자 최윤열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세제’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다수 개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왜 합리적이고 유익한 세금이 입법 추진 이전부터 시행을 100여일 앞둔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심각한 갈등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법논리를 보면 ‘거래세 폐지-실현 소득 과세’라는 점은 타당하다. 하지만 납세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작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금투세 대상자가 국내 주식투자자 14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1만3000여명이 대상이며 나머지는 논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자산증식의 기회를 얻기 위해 금융투자시장에 참가하는 개인들에게는 잠재적 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미래의 조세저항심을 유발하고 있다. 부의 사다리를 타려고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그 꿈이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큰 손’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이탈에 따른 시장침체 우려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뜰이나 상대적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증시에서 시장침체의 후폭풍은 개미들이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를 보는 시각에는 무엇보다 새로 생기는 세금에 대한 저항 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과하는 정책에 표출됐던 극심한 반발심리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양상이다. 그때도 과세의 직접 당사자는 한정돼 있었지만 다수 동의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한 다수의 거부 심리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처럼 거대 정치세력이 “나를 따르라”고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는 정도의 수준은 돼 보인다. 오만의 정치를 아직도 여야 모두에게서 목도하게 돼서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skc8472@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3일 (음 8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보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 48년생 먼저 간 배우자가 그리워지는 날. 60년생 무슨 일이든 삼세번이라 했으니 다시 도전해볼 것. 72년생 의무를 실행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84년생 13일의 금요일이니 운전조심.

소 37년생 말대라하면 어려울 것이 없는 인생사. 49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 우젓 얻어먹는다. 61년생 흑시 하는 마음으로 투자는 금세. 73년생 오히려 신속한 거절이 관계를 더 좋게 한다. 85년생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날.

호랑이 38년생 결정적인 말썽은 말에서 나오니 입조심을. 5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62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74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86년생 승진을 보기 위해 노력한 보람이.

토끼 39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51년생 돼지를 사기 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63년생 습관이 주는 편함을 이겨야 한다. 75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87년생 비록 자신은 어길지라도 저축은 속이지 않는다.

염 40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 잘못도 생각. 52년생 계속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하는 것도. 64년생 옷을 사는 지출을 줄여보라. 76년생 낫말은 새가 들으니 확인되지 않은 남의 허물을 논하지 마라. 88년생 퇴근하고 음주는 사양.

뱀 41년생 뱀은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5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65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신중. 77년생 왜 나는 일이 안 풀릴까 아직 운이 닿지 않아서이니 실망은 금물. 89년생 드디어 집을 사서 이사를 하여서 기쁨이.

말 42년생 뿌리 깊은 아들 선호사상이 남아 있으니. 54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남의 탓을 하지 마라. 66년생 선배가 은혜를 준다. 78년생 낱세 탄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90년생 어머니가 남겨 놓은 유산을 잘 지켜가자.

양 43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55년생 가려움증이 있다면 식습관을 조금 개선해보라. 6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79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91년생 실수로 오는 부담감.

원숭이 44년생 세상일이 다 제 뜻대로 되겠는가. 56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해야. 68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 모처럼 즐거운 하루. 80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자. 92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실감 난다.

닭 45년생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마음을 파고든다. 57년생 멀리서 친구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69년생 시대가 변했다 해도 상사에게 담비지 마라. 8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인생. 93년생 내게 주어진 값진 시간 보내기.

개 46년생 염원이나 기대가 있다면 명상을 해보라. 58년생 아들이나 딸이냐 논하지 말고 공평하게. 70년생 진실이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니다. 82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 94년생 말로만 듣던 횡재수가 현실로.

돼지 47년생 무자식 상팔자라 했으니 걱정할 것 없다. 59년생 참을수룩 의미가 있다. 71년생 취미로 하던 음악을 통해 보람을 찾는다. 83년생 뜻하는 일이 안 풀리는 것은 아직 때가 안돼서이니 실망마라. 95년생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약은 삼가야.

美 ‘생물보안법’, 글로벌 바이오 산업 판도를 바꿀 ‘변수’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미국 ‘생물보안법’은 국가안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1월 말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로부터 11대 1의 지지를 얻었고, 5월에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 문턱을 찬성 40, 반대 1로 통과했다. 이후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06표, 반대 81표를 받아 최종 법안으로 제정되기까지 상

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뒀다. 또 규칙 정치 법안으로 상정돼, 나머지 절차 또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규칙 정치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로 알려졌다.

이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생물보안법을 살펴보면, 미국이 명시한 우려 바이오 기업에는 ▲중국 유전체 장비 제조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애크,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대거 포함된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정조준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하다.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선전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며

인도는 핵심 국가로 떠올라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세계 2위권을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인도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현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성장세도 공격적이다. 후지필름, AGC바이오로직스 등 일본 기업들의 경우 미국 투자를 대규모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폭적인 지원 정책과 대대적인 기업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인류 생명을 다루는 범국가적인 가치를 갖춘 산업의 발전을 상호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mllee236@



김상회의四季 마음의 고향,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표현만큼 추석의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 또 없는 것 같다. 어김없이 팔월 보름 반가운 손님처럼 추석을 맞이한다. 정월 보름달도 같은 보름달이지만 추석 보름달은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원만하고 풍성한 모습이다. 동산 위로 정겹게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의 모습을 그 어디에 비할 수 있겠나. 추석은 한문 뜻으로도 ‘가을 저녁’이나 ‘가을 밤’이다. 이는 보름달의 정취 없이는 오곡백과를 거둬들이는 다음의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리라.

추석은 중추절(仲秋節) 또는 중추가절(中秋佳節)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고유의 언어로는 한가위라고도 한다. 한가위라는 한글 이름도 멋들어지지만 중추가절이란 어휘는 그 품격 또한 고아하다. 어려서는 멋모르고 즐거웠고 조상님들께 올릴 차례 준비에 노고보다는 보람으로 집안의 어른들도 뿌듯해하는 복된 날이었다. 조상님들께 예를 올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데 명절이 오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여기는 현실도 눈에 띈다. 어른은 어른들대로, 젊은 층들은 젊은층대로 자기들만의 명절증후군을 호소한다.

고향이 아닌 해외여행을 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달이 둥글어도 이제는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바라보는 시대가 되기도 했으니 보름달도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바라보는 그달 안에 고향의 정경과 정취를 함께 느끼던 그때 그 마음의 고향 달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래도 필자의 마음속에 한가위 보름달은 고향으로 다가온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발을 밟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의 고향 추석 보름달을 앗아가지는 못하리. 세상이 힘들어졌어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